

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쉼 듯하고 이상하게 들렸으며, 가사도 예전과 같지 않았다:—

“작은 악어는 어떻게 그의 반짝이는 꼬  
리를 멋지게 가꾸고, 나일강의 물을 모  
든 황금 비늘 위에 쏟아부을까!

“얼마나 쾌활하게 웃는 것처럼 보이는지,  
얼마나 깔끔하게 손톱을 펼치는지, 그리고  
부드럽게 웃는 턱으로 작은 물고기들을 환  
영하는지!”

“그건 분명히 정확한 가사가 아니야,”라고 불쌍한 앨리스가 말하며 다시 눈물을 글썽였고, “나는 결국 메이블임에 틀림없어, 그래서 그 좁은 집에서 살아야 하고, 장난감도 거의 없고, 배울 수업도 너무 많아! 아니야, 나는 결심했어; 내가 메이블이라면 여기 아래에 머무를 거야! 그들이 머리를 내밀며 ‘다시 올라와, 애야!’라고 해도 쓸모없을 거야. 나는 그냥 쳐다보며 ‘그러면 내가 누구지? 그걸 먼저 말해 줘,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게 좋으면 올라갈게. 아니면 여기 누군가가 될 때까지 머무를 거야’라고 말할 거야 — 하지만, 오 맙소사!” 앨리스가 갑자기 눈물을 터트리며 외쳤다, “그들이 머리를 내밀었으면 정말 좋겠어! 나는 여기서 혼자인 게 정말 너무 지겨워!”

그녀가 이렇게 말하며 손을 내려다보았고, 말하는 동안 토끼의 작은 흰 어린이용 장갑 하나를 끼고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. “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?”라고 생각했다. “나는 다시 작아지고 있음에 틀림없어.” 그녀는 일어나서 자신을 재보기 위해 탁자에 갔고, 거의 추측하건대 이제 키가 약 두 피트쯤 되고 빠르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았다. 곧 원인이 그녀가 들고 있던 부채임을 알아내고, 급히 떨어뜨려서 완전히 작아지는 것을 간신히 피했다.

“그건 아슬아슬한 탈출이었어!”라고 앨리스가 갑작스러운 변화에 꽤 놀랐지만 아직 존재함을 알게 되어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; “이제 정원으로!”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작은 문으로 달려갔지만, 아, 작은 문은 다시 닫혀 있었고, 작은 황금 열쇠는 이전처럼 유리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. “상황은 전에 없이 더 심각해졌어,”라고 불쌍한 아이가 생각했다, “내가 이렇게 작아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, 절대! 그리고 이건 정말 너무하다고 말할 거야!”